

##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ical Origi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이 창 무\*\*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장보고의 보안산업 활동 |
| II.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 | IV. 결론            |

#### <요 약>

보안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보안산업관련 연구 역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보안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통해 볼 때 국내 보안산업은 그 기원을 장보고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사서(史書)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해적 소탕 등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보호라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상무역권이라는 이권을 취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보안산업 활동을 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즉, 장보고가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였던 해적을 퇴치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보고의 활동과 비슷한 역사적 기록이 장보고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안산업 활동으로 판단된다.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활동은 당시 중국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근대적 성격의 보안산업 형태와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세계 보안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장보고 활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보고의 보안산업활동 및 세계 보안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적절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어 : 보안산업, 민간경비, 경호, 장보고, 청해진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I. 서론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 보안산업은 국내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77년 단지 9개에 불과하던 보안업체는 30여 년이 지난 2008년에는 3,043개 업체 이상으로 300배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민간경비협회, 1998; 경찰청, 2009). 보안산업과 관련한 연구 역시 1980년대 말까지 불과 몇 편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크게 늘기 시작해 현재는 매년 수십 편 이상의 학술논문과 전공서적이 출간되고 있다. 보안산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관련 연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안산업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보안산업의 발전방안이나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직무만족도, 그리고 보안업체와 경찰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창무, 2009: 295).

이런 측면에서 국내 보안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Robert McCrie(1992), Frank Morn(1982), 그리고 Robert Weiss(1979) 등 미국의 보안산업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역사주의와 역사적 연구는 Peter Hall(2003)이 강조하는 것처럼, 행태주의와 실증주의는 물론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역사적 사회과학(historical social science)’으로서 기존 사회과학 방법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또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Tuchman, 1994: 306). 따라서 국내 보안산업 관련 연구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서도 역사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적 연구는 역사적 기원을 찾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안타깝게도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민간경비론’과 ‘경호학개론’ 등 전공서적에서 민간경비나 경호의 역사를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들 전공서적이나 교과서들의 경우는 매우 간략하게 해방이전 국내 보안산업의 발달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불과 1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보안산업 발달과정에 대해 개략적 설명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김계원, 2004; 김두현, 2001; 안황권, 2009; 이윤근, 2001; 최선우, 2008).

반면에 김창호(2006)는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호의 발달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산업의 관점이 아닌 국왕과 왕실 경호, 이후 대통령 경호처와 같은 공(公)경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안산업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조직을 살펴본 장철원·김상진(2006)의 연구나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왕실 호위제도를 연구한 김낙진(2000), 이성진 등(2007, 2008)의 연구, 그리고 김창호·민재기(2008)의 연구 등 근대 이전 경호·경비 등 보안관련 부문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국왕과 왕실의 경호와 경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 측면의 경호나 경비에 대한 연구가 아니며, 더욱이 보안산업의 시원(始原)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니다.

때문에 김정환·서진석(2003, 2009)의 『한국경비산업발전사』는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출간됐을 때는 1980년대까지 보안산업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이후 2009년판에는 제1판의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제1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보안산업 발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환·서진석(2003, 2009)의 연구 역시 해방이후 보안산업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조선·삼국시대 이전과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등으로 시대를 분류하여 보안산업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사료(史料)에 근거한 설명과 분석이라기보다는 통사적(通史的) 입장에서 흐름을 설명하는데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봉건적 정치사회구조를 설명하는 가운데 족병(族兵), 가병(家兵)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던 사병(私兵)세력의 존재를 통해 보안산업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Chang Moo Lee(2005)는 보안산업적인 측면에서 근대 이전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역사적 사료(史料)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알렌(Allen)의 일기’ 등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발달과정을 통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 이와 같이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가 역사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을 탐색함으로써 국내 보안산업관련 연구의 체계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II.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

### 1.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기준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의 탐색에는 우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역사적 사례가 최초의 보안산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보안산업’에 대한 뚜렷한 개념정의와 함께 ‘역사적 기원(起源)’의 사실성 검토가 요청된다.

첫째, 보안산업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Kakalik & Wildhorn(1971)의 RAND 보고서와 PSTF(Private Security Task Force)보고서(1976), Cunningham & Taylor(1985)의 Hallcrest Report 등 보안산업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권위 있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안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최초’의 보안산업의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추론이나 과대 해석이 아닌 구체적이고 공인된 역사적 사료에 입각해 검증하거나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야사(野史)’나 ‘비기(秘記)’가 아닌 반드시 ‘정사(正史)’와 역사적 인물에 의한 기록을 토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삼국시대 신라의 시위부(侍衛府)와 같이 국왕이나 왕실의 경호를 위한 각종 조직의 활동은 비록 경호라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체가 공(公)조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산업의 활동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고조선의 경우 ‘팔조법금(八條法禁)’의 ‘相傷以穀償’ 규정과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규정(漢書 권 28 下, 志 8 下, 地理,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 1997: 94-96에서 재인용)에 나타나는 것처럼, 범죄로 인해 곡식이나 50만전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자본주의 체제의 존재와 함께 사설 경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주장하는 것 역시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경호나 경비를 담당하는 사병(私兵)들이 존재했으며 역사적 기록 또한 남아 있다. 중앙 왕권이 철저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 귀족이나 지방 호족들이 각기 사병을 거느리고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라 하대 들어서는 정권 쟁탈전과 함께 정치 불안이 극심해짐에 따라 중앙 귀족들과 지방 호족들이 대규모의 사병들을 보유했다. 중국의 사서(史書)인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에는 “재상가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고 노동(奴僮)이 삼천인(三千人)이요 ‘갑병(甲兵)’과 牛·馬·猪가 이와 상등하였다”고 기록돼 있다(이기백, 1994: 256). 재상가는 중앙 귀족을 뜻하며

갑병(甲兵)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무장이 가능한 군대, 즉 사병(私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김양(金陽)이 균정을 받들어 왕을 삼고, 적판궁(積板宮)으로 들어가서 ‘족병(族兵)’으로 숙위(宿衛)하였는데”라는 기록이 발견된다(三國史記 44, 金陽傳).

그러나 이러한 사병(私兵)이나 가병(家兵) 또는 족병(族兵)들을 기업 형태의 보안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또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역사적 기록 역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사적 기원을 주장할 수 없다. 권력가나 부호가 자신의 경호와 주변 경비를 위해 고용하는 사설 경호원 역시 기업 활동 여부의 모호성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의 부재로 인해 역사적 기원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 2. 국내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

위에서 밝힌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 보안산업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臯)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장보고의 활동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의 역사적 기록에 실려 있다. 중국 기록으로는 『신당서(新唐書)』卷 220 ‘동이전(東夷傳)’과 ‘신라전(新羅傳)’의 기록과 함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번천문집(樊川文集)』 제6권의 ‘장보고·정년 전(張保臯·鄭年傳)’에 장보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 일본의 경우 정사(正史)인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불교수업을 마치고 9년 만에 귀국해 장보고와 관련된 일정을 기록한 승려 엔닌(圓仁, AD 794-864)의 기행문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장보고에 관한 소상한 기록이 실려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소개돼 있으며, 이 또한 상당부분이 중국 기록을 재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서(史書)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빈약한 것은 후술하다시피 장보고의 출신 문제와 함께 왕권과 중앙 세력에 대한 도전을 부담스럽게 여긴 당시 기득권층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장보고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병(私兵)들을 활용해 해적을 퇴치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했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신라 흥덕왕(興德王)을 알현하고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길 원하자, 흥덕왕이 장보고에게 1만 명을 주어 해적을 소탕토록 했다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후에 보고(保臯)가 귀국하여 대왕을 뵈고 말하기를 ‘중국의 어디를 가보나 우리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청해(淸海)에 진영을 설치하고 해적들이 사람들

을 약취하여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길 바라나이다'고 하였다. 청해(淸海)는 신라 해로(海路)의 요지로 지금 완도라고 하는 곳이다. 대왕이 보고(保阜)에게 만 명을 주어 그 후에 해상에서 국인(國人)을 파는 자가 없었다. 보고는 이미 귀하게 되었다.”(後保阜還國, 謁大王曰, 遍中國以吾人爲奴婢, 願得鎮淸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淸海新羅海路之要, 今謂之莞島, 大王與保阜萬人, 此後海上無鬻鄉人者, 保阜既貴) (『三國史記』 卷 44 列傳 張保阜 鄭年 條)

반면 전덕재(2002)나 이희진(2004) 등 일부 학자들은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이 사병(私兵)이 아니라 공병(公兵)적 성격을 가진 군사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는 것처럼 청해진 세력은 장보고가 왕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아 설치한 군 조직임을 감안할 때 사병이 아닌 공병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1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청해전에 보낼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정청주, 1999: 67). 게다가 청해진 세력은 상당수 수군으로 이뤄져 있었으나 당시 신라는 그 정도의 수군이나 함선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삼국사기 역시 청해진 군사들을 군사가 아닌 단순히 ‘만인(萬人)’으로 표현하고 있다(三國史記 卷 11 新羅本紀 11; 三國史記 卷 44 列傳 張保阜 鄭年 條). 또한 Edwin Reischauer도 ‘만인’을 1만 명의 군사가 아닌 ‘주민(populace)’으로 번역하고 있다(Reischauer, 1955: 100). 따라서 ‘만인’이란 왕이 직접 파견한 군대가 아니라, 청해진 주변 어부 등 백성들로 충원한 장보고의 사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보인다. 국내 장보고 연구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김상기 역시 일찍이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을 사병적(私兵的) 성격을 가진 군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권덕영, 2005: 258에서 재인용). 이기백(1994: 262)과 정청주(1999: 67)도 1만 명은 완도를 중심으로 연해안 주민 중에서 동원한 민군(民軍)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청해진 역시 국가의 공식기구가 아닌 장보고의 사병(私兵)집단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안산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성격과 관련해서도 당시 신라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장보고의 청해진 군사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국가 재정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청해진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보고에게 대외교역권을 인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신라 입장에서는 당시 해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던 상황에서 장보고로 하여금 해적을 소탕하게 하고 대신 해상무역을 통해 청해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토록 하였던 것이다. 장보고가 해적으로부터 신라인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

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 활동의 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성훈(1996; 2005)은 청해진이 군사적인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장보고의 해상무역을 총괄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장보고의 청해진을 ‘군·산·상복합체(軍産商複合體)적인 종합상사’로 규정하고 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이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갖고 9세기 한중일 국제무역을 석권했다는 것이다. 박남수(2006)와 최민자(2006) 역시 장보고를 9세기 한중일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해상상업세력이며 무역업자로 보고 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유 역시 해로의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교역망의 유지로 보는 것이다(박남수, 2006: 169). 또 권덕영(2005: 269)은 “9세기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무대로 이른바 황해무역을 독점하고 당시의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군인이었고 국제 무역 상인이었다”라고 장보고를 소개하고 있다.

Reischauer(1955) 역시 장보고를 해상 상업제국의 무역왕(merchant-prince)으로 표현하면서 장보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Chang Pogo was an extraordinary Korean adventurer of the time, whose name crops up several times in the histories of China, Japan as well as those of Korea. ... He returned to Korea and in 829 persuaded the King to appoint him Commissioner of Chonghaejin with the mission of curbing slaving depredations in that region, of which he had become aware while in China. Chonghaejin was on Wando, an island just east of the southwestern tip of Korea and a key place at this time in the trade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From this vantage point Chang Pogo became a **merchant-prince** with extensive holdings and commercial interests in China and with trade contacts with Japan. ... Chang Pogo was of course richly rewarded for these services.”  
(Reischauer, 1955: 100)

Reischauer의 소개 내용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장보고는 해적퇴치와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고 부(富)를 축적했다. 이와 같이 장보고가 사병(私兵)을 관리·운용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역사적 기록이 장보고 이전에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안산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Ⅲ. 장보고의 보안산업 활동

#### 1. 장보고 해상세력의 등장

장보고의 출신 배경은 역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장보고(張保臯)’란 이름 자체도 원래는 姓氏를 사용하지 않은 ‘궁복(弓福)’(三國史記)이나 ‘궁파(弓巴)’(三國遺事)이다가 당(唐)에 들어간 이후 성(姓)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姓을 사용할 필요가 생기면서 ‘궁복(弓福)’의 ‘弓’자를 따서 ‘張’씨로 칭하고 ‘福’을 ‘保臯’로 차음했다는 해석이 많다.

장보고의 가계(家系)와 출신에 대해서 역시 정확한 사료(史料)가 존재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도 “그 향읍(鄉邑)과 부조(父祖)를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三國史記, 卷 44 列傳 張保臯 鄭年 條). 단지 장보고가 해도(海島)출신이었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다. 장보고 딸의 왕비 납비(納妃) 문제와 관련하여 그 혼사에 대해 신라 대신들이 반대한 이유가 장보고가 ‘해도인’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이다(三國史記, 卷 11 新羅本紀 11 條).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뿌리 깊게 확립돼 있던 당시 신라에서 장보고의 출신 성분을 들어 반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장보고가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이거나 혹은 그보다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도 장보고에 대해 ‘측미(側微)’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장보고가 해도 출신의 미천한 신분임을 의미하고 있다(三國遺事, 卷 2 紀異 神武大王 · 閻長 · 弓巴 條).

장보고의 해상무역의 성립 배경이 되는 입당(入唐)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번천문집(樊川文集)’에서 장보고가 서주에서 ‘군중소장(軍中小將)’이 되어 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귀국해 청해진을 설치한 때가 828년이므로 20세를 전후해 중국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나라에 있으면서 장보고의 행적은 ‘무령군 소장(武寧軍 小將)’이 되어 군공(軍功)을 쌓았다는 기록이 주된 것이며,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장보고가 대략 820년대 전반에 이미 해상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김덕수, 1988: 65). 이후 장보고는 흥덕왕(興德王) 3년(828년)에 귀국하여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청해진 설치를 왕에게 요청한 뒤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을 받고 본격적으로 해적 소탕과 함께 해상무역의 보호에 나서게 된다.



## 2. 장보고 활동의 시대적 배경

### 1) 신라 하대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신라 하대로 접어들면서 신라 사회는 왕실·귀족들의 사치와 부패가 심해지는 한편 백성들에 대한 착취 또한 커져만 갔다. 많은 주민들이 골품귀족들의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 유민화(流民化)되거나 도적화(盜賊化)되고 지방 호족들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왕권 역시 귀족들의 잦은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신라 하대를 혜공왕(惠恭王) 당시 ‘대공(大恭)의 난’을 기점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신라 사회의 쇠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三國遺事, 卷 2 惠恭王條). 대공의 난은 전국의 96 각간(角干)이 서로 항쟁했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인 대란으로 확산되어 3년간이나 지속됐다. 이후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면서 끊임없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극심한 정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아울러 헌덕왕(憲德王), 흥덕왕(興德王)대 들어서는 만성적인 기근과 전염병까지 유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삼국사기는 헌덕왕과 흥덕왕 사이 기름 등 자연재해와 함께 기근이 계속 이어져 굶어죽고 도적이 횡행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三國史記, 新羅本紀 卷 10, 憲德王·興德王條).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 있음에도 신라 하대 골품귀족들의 생활은 풍요와 사치가 만연해 있었다. 귀족들은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사전(賜田)과 매입, 개간 등의 방법을 이용해 막대한 사유지를 소유했다. 이러한 사유지, 녹읍 등 경제적 기반을 근거로 신라 하대 96각간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처럼 신라를 떠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신라사회의 폐쇄적인 골품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라를 떠나게 됐다.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는 설계두(薛鬪頭) 역시 이처럼 신라 골품제도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으로 떠난 이들 중의 한명이었다.

“설계두가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쓰는 데 골품을 따지므로 정말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한도를 넘지 못한다. 내가 원컨대 멀리 중화국(中華國)에 가서 불출의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제 스스로 영화의 길을 열고, 고관복에 검패를 갖추고 천자 곁에 출입하였으면 족하겠다.’”(鬪頭曰, 新羅用人, 論骨品, 苟非其族, 雖有鴻才傑功, 不能踰越, 我願西遊中華國, 奮不世之略, 立非常之功, 自致榮路, 備簪紳劍佩, 出入天子之側, 足矣) (『三國史記』 卷 47 列傳 薛條)

설계두는 이후 중국에 도착, 당(唐)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자원하여 좌무위과 의가 되어 큰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 당 태종은 신라인이 당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에 큰 감명을 받고 몸소 설계두의 시신에 어의(御衣)를 덮어주고 대장군의 관직을 제수했다(三國史記, 卷 47 列傳 薛條).

신라 하대로 접어들면서 신라는 왕위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동요하는 가운데 진골 귀족 중심의 골품제에 근간한 관료제 운영의 모순이 드러나는 변동기를 맞이하였다. 잦은 정쟁에 따른 왕권의 불안정은 진골귀족의 분화를 촉진하면서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던 두품 신분의 성장과 분화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두품신분의 정치적 성장은 애초부터 일정한 한계에 가로막혀 있었다. 신라의 관료제가 골품제를 근간으로 운영되었던 만큼 관료제 운영상의 탄력성이나 신분적 범위를 넘어서는 관등 수여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권력쟁탈전에 성공한 국왕이 현실의 이익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었던 두품신분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자신이 진골 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진골 귀족에 의하여 독점된 관료제 운영방식의 모순은 신라의 집권적 지배체제 유지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면서 중앙 관료층 내부의 불만을 길러내고 있었다.

지배체제의 모순은 지방사회에서도 발견되고 있었다. 골품제의 운영원리가 왕경인(王京人)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에서 지방인의 정치적 진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방사회에서는 스스로를 ‘관인(官人)’으로 칭하는, 현지 유력자들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인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지방인들의 불만은 822년(憲德王 14년) 김헌창(金憲昌)의 반란을 계기로 표출되었다. 김헌창의 반란은 신라가 안고 있던 정치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적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다수의 지방 세력의 협조가 뒷받침된 가운데 발발하였다. 비록 진골귀족이 주도하여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지방 세력의 존재는 중앙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신성재, 2004: 33) 이러한 현상은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가던 상황과 맞물려 지방통치에서 현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앙 귀족과 지방 호족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이 노골화되고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왕권은 이를 제대로 제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지나친 조세와 부역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등은 백성들을 유민화시켰고 이는 결국 징병제에 의한 군사력 확보의 어려움을 의미했다. 끊임없는 왕권에 대한 위협은 부족한 군사력을 왕궁만을 지키는 왕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었고 지방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유민(流民) 도적의 방지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장보고가 청혜진을 설치한 신라 하대의 시기는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경제적인 피폐함 그리고 중앙정부와 귀족들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백성들의 유민화와 도적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져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란기였다. 지배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났던 시기였다. 그로 인해 지방 호족들의 세력은 강성해져갔고 이후 신라말·고려초로 이어지는 전환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장보고세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 하면서 청해진 대사로 임명될 수 있었던 데는 중앙정부가 당면하고 있던 정치적 현안문제와 급속히 성장한 장보고 세력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 2) 해상무역의 활성화와 해적의 폐해

장보고가 활동하던 9세기에는 신라와 중국, 일본 간 해상 교역 특히 민간 교역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신라 혜공왕 4년(768년)에 발생한 ‘대공의 난’ 이후 80여년간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자 공식 사절에 의한 공(公)교역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일본, 그리고 신라와 중국 간에는 사(私)교역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면서 활성화되었다. 더욱이 신라 하대 들어서 골품귀족들의 사치가 만연해져 진귀한 물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가뜩이나 줄어든 조공무역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私)교역의 확대로 연결되었다. 즉, 장보고 등장 이전부터 서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신라선 9척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던 해운조직의 중심이었던 초주(楚州)와 신라선을 건조하던 선공집단이 있던 계주(揚州) 등 신라인들의 해상무역활동이 활발했음이 기록돼 있다(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5年 9日 條). 또 일본사서(史書)에는 수입된 신라물품을 구매하려는 좌우대신을 비롯하여 대관, 왕녀들로부터 구매대금으로 태재부(太宰府) 면(綿) 7만여 둔(屯)을 하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續日本記 卷 29 天武 8年 10月 條).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당시 신라의 대외 무역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인들이 일본에 판매한 물품은 단지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들만이 아니라 중국의 진귀한 물품 내지는 동남아나 아랍 등지의 물품까지 판매했다는 점에서 중계무역 역시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중국 역시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어 신라와 일본과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와 아랍, 인도 등 다양한 국가와 교역을 확대했다. 무역을 위해 당(唐)에 거류하는 외국인도 증가해 9세기경에는 산둥(山東)반도에는 신라인이, 광주(廣州)지역에는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이 정주하면서 무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장보고의 당(唐)과의 교역에 있어서 산둥(山東)지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둥 지역은 신라인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데다가 중국의 주요한 물자가 대량으로 집결되는 양주(揚州)와 대운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자를 신라와 일본 등으로 연결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해상무역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해적의 발호를 불러왔다. 물론 해상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9세기 초 신라인들의 해적 활동이 크게 증가한 된 데는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라 귀족들의 착취와 심한 조세·부역 그리고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등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은 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거나 산적이 되었고, 연해안의 어민들은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유망(流亡)하거나 해적이 되어 주로 중국이나 일본의 해안지방을 약탈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라 해적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신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9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일본후기(日本後紀) 홍인(弘仁) 1년(81년) 8월 12일 조에 “신라인 김파형(金巴兄), 김소파(金小巴), 김승제(金乘弟) 등 3인이 이르기를, 지난해 본현(本縣)에 곡식을 싣고 오다가 ‘해적’을 만나 같이 오던 자 모두 빠져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일본약기(日本略紀) 홍인(弘仁) 4년(813년) 3월 18일조에는 “신라인 110인이 5척의 배를 몰아 오지카 섬에 도착하여 주민과 서로 싸웠다. 9인을 죽이고 101인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후기(日本後紀) 홍인(弘仁) 3년(812년)에 신라의 해적선 20여 척이 대마도에 침입했고, 경문왕 9년 869년에 신라 해적이 일본 주민들을 약탈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한편 중국 해적 또한 해상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기승을 부렸는데, 신라 및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진 당대(唐代)에 와서는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의 연안지역과 그리고 산둥(山東)반도가 중국 해적들의 주된 무대였다. 대부분의 중국왕조는 조공(朝貢)무역이나 공시(貢市)무역만 허용했으며, 관(官)주도의 무역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고 해금령(海禁令)이나 천계령(遷界令)을 내려 해상무역활동을 금지시켰다. 때문에 사(私)무역은 상당수 밀(密)무역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었고 이들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해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다. 밀(密)무역상들은 해적에 대비해 자체 무장하기도 했으나 해적과 협상하거나 아예 연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상업적 교역과 해적 행위를 병행하는 ‘반상반도(半商半徒)’의 무리들이 생겨난 것이다. 해상(海商)들은 해상 무역을 금지하는 중국 정부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였으며 심지어 공시(貢市)무역선의 화물을 약탈하기도 했다. 강소성(江蘇省)이나 절강성(浙江省) 그리고 산둥(山東)반도 연안에서 해상무역이 활발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 지역에서 해적들의 활동이 빈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조시대(386-589)와 수(隨)대(581-618)의 230여 년 동안 불과 2건의 해적 발생 건수가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반해 당(唐)대(618-907)에는 8건이 기록돼 있어 이 시기 동안 해적 행위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김주식, 2005: 15). 중국 해적은 10명 이하 10척 미만의 적은 규모에서 1만 명에 이르는 해적도 많았다. 심지어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해적 조직도 존재했다.

중국 해적은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에 따라 황해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와 멀리 인도에 이르는 원양 항로도 개척하는 한편 자신들의 근거지를 해상무역항으로 발전시켰다. 중국 정부가 해금령(海禁令)이나 천계령(遷界令)을 통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거나 방치된 연안 도서(島嶼)를 중심으로 항구시설을 건축하고 무역항으로 발전시켰다. 중국의 도서지방은 해적에 의해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만(臺灣)이었다(김주식, 2005: 57). 중국 해적은 대규모 세력을 구성하여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국 정부는 해전(海戰)을 꺼려했기 때문에 중국 해적의 활동은 거침없이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다.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의 이유로 밝혔듯이, 중국 해적들은 상품의 약탈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역시 주된 활동 영역 중의 하나였다. 무역선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배 안의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넘겨 이중의 수익을 올렸던 것이다. 그래서 구당서(舊唐書) 본기(本紀) 장경(長慶) 1년(821년) 3월 정미조(丁未條)에는 “평로(平盧)의 설평(薛平)이 상주하기를, 해적이 신라의 양구(良口)를 연해의 군현(郡縣)에 붙잡아다 팔고 있다. 청하건대 근절시켜 달라기에 이에 따랐다”고 기록돼 있다. 노예로 팔리는 신라의 양구(良口)는 일본으로 가는 도래인(渡來人)과 마찬가지로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당서(舊唐書) 목종본기(穆宗本紀) 장경(長慶) 3년(823년) 정월 정사조(丁巳條)에는 “칙명으로 신라인을 노예로 팔 수 없도록 한다. 이미 중국에 있는 자는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해적 활동에 대한 단속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자 한 주요 이유가 되는 것이다.

### 3. 청해진 설치와 장보고의 보안산업 활동

장보고는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을 받았다. 이는 신라 관직에는 없는 직함이며, 신라 역사에서 장보고에게만 부여한 매우 특수한 관직명이다. 신라의 골품제나 관등제도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은 예외적인 관직이 아닐 수 없다. ‘대사(大使)’의 의미에 대해 당(唐)의 ‘절도대사’ 용례를 바탕으로 절도사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으나(김문경, 1997: 81-83), ‘대사(大使)’는 용어의 본래 의미대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국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청해진을 설치한 목적이 ‘해적소탕’이었으므로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으로부터 ‘해적소탕’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청해진을 관할하였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특정한 목적성이 내포된 ‘대사’라는 직함을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장보고가 ‘대사’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중국·일본과 교류하면서 단순한 상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효율적인 해상무역을 벌일 수 있었고 해상무역 성공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장보고가 독자적인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라 국왕이나 다른 세력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스러울 수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주요한 토대가 됐다고 보인다.

청해진은 기존의 신라 군사조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신라 패강진(溟江鎭)의 군관조직은 책임자인 두상대감(頭上大監)과 예하의 대감(大監), 두상제감(頭上弟監), 제감(弟監), 보감(步監), 소감(少監)으로 구성되었다(三國史記 卷 40, 職官 下 外官 溟江鎭傳). 하지만 청해진의 직책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이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본인의 마음대로 조직하고 운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하는 장보고의 활동은 넓게 보자면, 무역활동과 해적 퇴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적 소탕과 해상무역을 보호하는 대신 9세기 전반 황해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최남선은 장보고를 ‘동방해왕(東方海王)’이라 호칭했고(권덕영, 2005: 252), Reischauer(1955)는 ‘무역왕(merchant prince)’이라 불렀다. 특히 Reischauer는 세계 중세무역사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장보고의 무역활동을 자세히 고찰하고 장보고가 초기 세계무역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서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일부 학자들이 ‘군·산·상복합체(軍産商複合體)적인 종합상사’나 ‘다국적 기업’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이처럼 장보고가 단순히 무역거래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일종의 보안업체 직원)으로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해적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보장하는 대신 경제적 반대급부를 획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안산업의 관점에서 장보고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활동은 해적 퇴치활동이다. 장보고가 신라 흥덕왕(興德王)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할 때 그가 내세운 명분은 바로 당시 황해를 횡행하던 해적퇴치였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서남해안에 출몰하던 해적들의 활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태화(태화) 연간(827-835)부터 해상에는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자가 없었다”라는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新唐書, 卷 20 東夷傳). 이는 장보고가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해적들을 직접 소탕하였을 뿐 아니라 해적들의 노예무역과 연결된 기존의 해상세력가들을 철저히 단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IV. 결 론

넓은 의미에서 보안산업은 사회의 구성과 함께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능력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결국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보상과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존립하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때 보안산업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안산업은 고대국가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역사적인 사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가 어려울 따름이다.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통해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시원(始原)은 장보고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당서(新唐書)』 제220권 ‘동이전(東夷傳)’과 ‘신라전(新羅傳)’의 기록과 함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번천문집(樊川文集)』, 일본의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와 일본 승려 엔닌(圓仁, AD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장보고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목적이 해적 소탕과 해상무역의 보호에 있는 만큼 장보고가 ‘보안활동’을 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성격과 관련해서도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보호라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상무역권이라는 이권을 취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보안산업의 관련성 또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장보고의 청해진 활동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을 ‘군·산·상복합체(軍産商複合體)적인 종합상사’로 규정하는가 하면, 다국적 기업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것만 보더라도 장보고의 활동이 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장보고가 자신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여, 당시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였던 해적을 퇴치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면서 경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장보고의 활동은 보안산업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보고의 활동과 비슷한 역사적 기록이 장보고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안산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9세기 당시 장보고의 해상보호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철저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보고의 조직이 오로지 해적으로부터의 보호 등 보안과 관련한 기업 활동에만 전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현대 보안업체들이 보유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할 수도 없다. 결국 장보고의 활동은 전문성, 배타성 등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보안산업 기준에 비춰 볼 때는 부족하고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업체에 대한 현대의 엄격한 기준을 1000년 이전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장보고의 활동은 당시 중국은 물론 이슬람 문화권과 유럽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근대적 성격의 보안산업 형태와 기능을 수행했다고 여겨진다. 세계 보안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장보고 활동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장보고의 보안산업활동 및 세계 보안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적절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보고의 활동을 보안산업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는 한편 보안산업의 관점에서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아울러 장보고의 보안산업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고증(考證) 작업 및 세계 보안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평가 연구와 홍보는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상택(2000).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에 관한 고찰”, 『부산사학』, 38: 1-44.
- 강정모외(2007). 『장보고와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서울: 박영사.
- 경찰청(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국사편찬위원회(1997). 『한국사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권덕영(2005). “장보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장보고 연구논총』, 4: 233-294.
- 김계원(2004). 『경호학』. 서울: 백산출판사.
- 김낙진(2000). “고려시대 견룡군의 설치와 임무”, 『역사학보』, 165: 35-67.
- 김덕수(1988). “장보고의 해상무역에 관한 일 고찰”, 『해운물류연구』, 7: 63-90.
- 김두현(2001). 『경호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문경(1997). 『장보고시대의 해상활동과 교역』. 서울: 국학연구원.
- 김부식. 이병도역(1996). 『삼국사기』. 서울: 을유문화사.
- 김성훈(1996). “미래사 시각에서 본 장보고 해양경영 -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한 모델”, 『장보고와 청해진』. 서울: 해안.
- \_\_\_\_\_ (2005). “장보고 해양활동의 미래사적 조명”, 강정모 외 『장보고와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서울: 박영사.
- 김정환·서진석(2003). 『한국경비산업발전사 I』. 서울: 백산출판사.
- \_\_\_\_\_ (2009).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백산출판사.
- 김주식(2005). “중국 해적의 역사적 특징”, 『장보고 연구논총』, 4: 9-59.
- 김창호(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 김창호·민재기(2008). “고려시대 시위제도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99-120.
- 민간경비협회(1998). 『민간경비협회 20년사』. 서울: 다보당.
- 박남환(2006). “8-9세기 한·중·일 교역과 장보고의 경제적 기반”, 『대의문물교류』, 4: 125-170.
- 서진석(2004).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손보기(1996). 『장보고와 청해진』. 서울: 해안.
- 신성재(2004). “9세기 전반의 신라 정치사회와 장보고세력”, 『학림』, 24: 1-35.
- 안황권(2009). 『민간경비학』. 서울: 도서출판 진영사.
- 이기백(199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서울: 일조각.
- 이성진·김의영·이종환(2007).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13-429.
- 이성진(2008). “조선후기 호위제도의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 이윤근(2001). 『민간경비원론』. 서울: 엑스퍼트.
- 이창무(2009). “형사사법 민영화에 관한 정치이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291-318.
- 이희진(2004). “청해진의 사병적 성격 여부에 대한 검토”, 『대외문물교류』, 3: 1-44.
- 장철원·김상진(2006).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정세와 경호조직 변천사”, 『경호경비연구』, 12: 291-308.
- 전혁재(2002).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서울: 태학사.
- 정청주(1999). “장보고의 생애와 활동”, 『여수대학교논문집』, 14(1).
- 최민자(2006). “장보고의 초국가적 발전 패러다임 연구”, 『대외문물교류』, 4: 395-442.
- 최선우(2008). 『민간경비론』. 서울: 도서출판 진영사.
- 허일외(2007).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서울: 국학자료원.

## 2. 국외문헌

- Cunningham, William C. and Todd H. Taylor. (1985). *The Hallcrest Report I: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 Lee, Chang Moo. (2005).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rivate Policing in Korea During the Pre-Modern Era.” *Asian Policing*, 3(1): 46-66.
- Hall, Peter A. (2003). “Aligning Ontology and Methodology in Comparative Politics.”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373-40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kalik, James S. and Sorrel Wildhorn.(1971).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McCrie, Robert D.(1992). “Three Centuries of Criminal Justice Priva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Gary W. Bowman, Simon Hakim, and Paul Seidenstat. (eds), *Privatizing the United States Justice System: Police, Adjudication, and Corrections Services from the Private Sector*. Jefferson, NC: McFarland.
- Morn, Frank.(1982). *The Eye That Never Sleeps: A History of the 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6). *Private Securit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Washington, DC: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 Reischauer, Edwin O. (1955). *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Tuchman, Gaye. (1994). “Historical Social Science: Methodologies, Methods, and

Meanings.” In Denzin, Norman K., and Yvonna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Weiss, Robert. (1979). *An Interpretation of the Origin,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Private Detective Agency Policing in the United States, 1850-1940*.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3.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日本後紀

舊唐書

新唐書

樊川文集』

入唐求法巡禮行記

## Abstract

### **A Study on the Historical Origi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Lee, Chang Moo

Around the middle of the ninth century the strict bone-rank system of Silla frustrated many people who had political ambition but lacked nobility. They had to seek other ways, including maritime trade. Such an undertaking reflected and also increased their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rade prospered with T'ang China and with Japan as well. The threat of piracy to Silla's thriving maritime trade caused to create a succession of garrisons at important coastal points. Chonghae Jin (Chonghae garrison) w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t was established in 828 by Chang Pogo. Chonghae Jin was on Wando, an island just east of the southwestern tip of Korea and a key place at this time in the trade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From this vantage point Chang Pogo became a merchant-prince with extensive holdings and commercial interests in China and with trade contacts with Japan.

Although piracy was rampant in East Asia at that time, either the Chinese or Silla government was not able to control it due to inner political strife and lack of policing resources. Infuriated by the piracy and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control it, Chang Pogo came back to Silla to fight against the pirates and to protect maritime trade. He persuaded the king of Silla and was permitted to control the private armed forces to sweep away the pirates. In 829 he was appointed Commissioner of Chonghae-Jin with the mission of curbing piracy in that region.

Chang's forces were created to protect people from pirates, but also developed into traders among Silla Korea, T'ang China, and Japan in the 9th century. This was geographically possible because the Chonghae Garrison was situated at the midpoint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also because Chang's naval forces actually dominated the East Asia Sea while patrolling sea-lanes. Based on these advantages, Chang Pogo made a great fortune, which might be collected from a charge for protecting people from pirates and the trades with China and Japan. Chang's forces could be termed the first private security company in the Korean history, at least in terms of historical documents.

Based on historical documents, the numbers of private soldiers might be estimated to exceed tens of thousands at least, since Chang's forces alone were recorded to be more than ten thousand. Because local powers and aristocratic elites were said to have thousands of armed forces respectively, the extent of private forces was assumed to be vast, although they were available only to the privileged class. In short, the domination of Chang's forces was attributable to the decline of central government and its losing control over local powers. In addition it was not possible without advanced technologies in shipbuilding and navigation.

Key Word :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urity, Protection, Chang Pogo, Chonghaejin

논문투고일 2010. 1.30, 심사일 2010.2.15, 게재확정일 2010.3.22